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시다!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원 그리고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데 적극 동참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지난 12월 3일, 23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포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정부 핵심인사
몇몇이 주도하고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유린하는 친위쿠데타가
분명합니다.

다행히 국회의 발 빠른 조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
계엄이 해제되고 더 이상 무질서가 확산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불
발된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며 87년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
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 들을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관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내란을 시도한 범죄자로서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과 국민과 언론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대통령에게 무한의 아량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과학기술노동자들은 87년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민주주의 질서 위협에 맞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에 맞서 힘차게 투쟁 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과학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2024년 12월 5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